

2008. 3. 17 제187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3. 17 제187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뉴욕市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방적 운영

문화·디자인

1. '3유로 티켓'만 있으면 취약계층도 문화생활 누릴 수 있어 (베를린)

산업·경제

2. '배우면서 즐기는 관광'이 뜬다 (일본 교토府)
3. 고급 기차로 관광사업 활성화 (브라질 쿠리치바市)

건강·복지

4. 생애 스포츠 사회 실현계획 공표 (일본 교토府)

행정·재정

5. 주민끼리 끈끈하게 엮어주는 '지역력'의 힘 (일본 교토府)
6. '폴뿌리' 동(洞) 의회, 45년 만에 되살린다 (영국)
7. 10대 청소년 음주 단속 강화 (영국)

목 차

방재·안전

8. 저녁 자전거 산책도 안전은 필수 (브라질 쿠리치바市)
9. “애들아, 인터넷은 때로 위험하단다” (베를린)

도시환경

10. 혼잡통행료도 ‘매연 배출 성적표’에 따라 부과 (런던)
11. ‘환경 물류 프로젝트 회의’ 설치 (도쿄)
12. 수돗물 마시고 온실가스도 줄이자 (런던)
13. 관광지에서도 환경보호 먼저 (브라질)
14. 영화·TV 프로그램 제작 때에도 CO₂ 저감 노력 (런던)
15. 나무는 ‘미세먼지’ 먹는 하마 (영국)
16.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면 은행 문턱 낮아진다 (도쿄)
17. 시민이 적는 ‘환경보호 실천 이야기’ (캘리포니아주 월넛크릭市)

도시교통

18. 자전거 이용자 늘면 자전거 주차장도 늘어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벤치마킹 사례]

뉴욕市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방적 운영

<주요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며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임. 뉴욕市 도시계획위원회는 1936년 ‘도시헌장’에 근거해 전문가 7명이 모여 193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
- 뉴욕市 도시계획위원회는 1989년 시장이 지명한 6명(위원장인 뉴욕市 도시계획국장 포함), 각 자치구청장이 지명한 5명, 공공 변호인(Public Advocate)이 지명한 1명 등 총 13명으로 증원돼 운영되고 있음.
 - 시장 재임기간 동안 도시계획위원장은 교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함. 시장이 재선되면 도시계획위원도 연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지 않도록 임명 시점을 서로 달리 함.
 -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 개개인의 사진과 약력을 공개하고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는 주택, 비즈니스, 산업, 교통, 유통, 여가, 문화, 안전, 편의, 보건, 복지 분야를 포함해 도시 성장 및 개발과 관련된 계획 전반을 다룸. 규제 대상인 부동산의 이용·개발·개선 등에 관련된 상정안과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통합 토지이용 검토과정(ULURP: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을 따르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용도지역제 규정 개정과정, 197-a 커뮤니티 기반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사안별 보고서로 작성함.
 - 일반사업계획(GPP; General Project Plan)을 작성하도록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서한을 통해 검토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함.

·공개된 보고서에는 사안의 내용과 처리과정이 수록돼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원회의 검토의견이 기명으로 제시됨.

-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정안 검토과정과 결정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날날이 공개하고 있음.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자치구 및 지역별, 키워드별, 날짜별, 사안별로 정리
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각종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음.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도시계획위원장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보고서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도 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NYC Department of City Planning websit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ity Planning Commission Reports". Below the title, there is a search filter section with tabs for "By Borough / CD", "By Keyword or #", "By Date", and "By Type". The "By Borough / CD" tab is selected, showing dropdown menus for "Borough:" and "Community District:". Below the filters is a table of reports:

ULURP No.	Project Name	CD	CPC Vote
N 080273 PXQ	75-20 Astoria Blvd	QN 3	2/27/2008
N 080272 PXQ	1 Gotham Center	QN 2	2/27/2008
N 080230 HAX	Prospect/Macy	DX 2	2/27/2008
N 080224 HAX	College Avenue	BX 4	2/27/2008

도시계획위원회 보고서를 지역별, 날짜별, 사안 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음(a030-cpc.nyc.gov/html/cpc/index.aspx).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은 최소 1개월 전에 안건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됨.

-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격주 월·수요일에 개최함. 월요일에는 상정안
검토회의를, 수요일에는 상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사안에 따라 특별
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함.

·청문회는 시민에게 공개되며 시영방송을 통해 TV로 중계되기도 함.

Department of City Planning - "Shaping the City"

Land Use Process > Commission Meetings & Hearings

Review Sessions & Public Meetings:

- Review Session
- Public Meeting
- Previous Calendars & Disposition Sheets
- Related Links

Next Review Session:
Monday, March 24th, 2008, 1:00 PM in Spector Hall
22 Reade Street, New York, New York

Review Session Agenda:
not yet available

Review Session Disposition:
[March 10th Review Session Disposition Sheet](#)

Special Meeting:
Monday, March 10th, 2008, 1:00 PM in Spector Hall
22 Reade Street, New York, New York

Special Meeting Calendar:
[View the Calendar for March 10, 2008](#)

March 2008

S	M	T	W	TH	F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pril 2008

S	M	T	W	TH	F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view Session
■ Public Meetings
■ Holiday
■ Special Meeting

회의 개최일정이 안전과 함께 공지됨(www.nyc.gov/html/dcp/html/luproc/calbeg.shtml).

<해설 및 평가>

- 뉴욕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의 임기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고, 위원의 교체 시점을 달리해 한꺼번에 바뀌지 않도록 운영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기명화하고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사회적 권위를 높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임명 시점이 분산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임명 시점이 비슷하다보니 위원이 일시에 대폭 교체되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내용은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 1년 후에 공개됨.
- 이 때문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낮은 경우도 빈번하며, 상정안 처리에 대한 절차적 예측 가능성도 낮은 편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는 현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자료 비공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안에 따라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함.
 -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일정과 안건을 공개함.
 - 공개 위원회 상정 사안의 경우, 토론내용과 결과를 공개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상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늘리고, 임명 시점을 달리함.
 - 선별적 자료 공개 방식에서 선별적 자료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도록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를 늘리고 임명 시점을 달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도시계획 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상정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된 市 당국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임.

/김상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urbnplnr@sdi.re.kr)

1. '3유로 티켓'만 있으면 취약계층도 문화생활 누릴 수 있어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5년 5월부터 실업자나 공적부조대상자, 취약연금생활자 등 취약계층이 영화, 오페라, 콘서트 등을 3유로(약 4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3유로 티켓'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2007년 말까지 총 25만 374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됨.

- 취약계층은 베를린市에 있는 오페라 공연장과 콘서트장 등 19곳 대표소에서 행사 시작 바로 전에 잔여티켓을 살 수 있음.

·프리미어 공연과 초청공연은 제외되며, 특별 공연기간에만 3유로 티켓을 적용하는 곳도 있음.

·예약보다 주로 현장구매만 가능한 단점이 있음.

- 市 문화부는 베를린 시민 중 약 40만 명이 취약계층에 속하는데, 3유로 티켓은 이들에게 도시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함.

(www.kultur.berlin.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2/05/94175/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 할인 적용은 해외 도시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임.

- 서울시도 '천원의 행복'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좀 더 저렴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음.

·하지만 아직 일반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공연이나 미술 관람 가격이 비싸므로, 다양한 계층이 쉽게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민간 문화시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배우면서 즐기는 관광’이 뜬다 (일본 교토府)

○ 일본 교토府는 관광산업을 향후 성장산업으로 보고, 2010년에는 교토府를 찾는 관광객을 800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新교토부 종합계획’을 세움.

- 교토府는 다양화되는 관광 관련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배움’을 주요 콘셉트로 하는 관광상품을 만들 계획임.
- 교토府는 종합관광안내소 정비 등 효과적인 관광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지 만들기 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음.
 - 머리로 기억한 것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기억한 것에 더 크게 감동하므로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 향후 주류가 될 것임.
 - 그린 투어리즘(농촌 관광)이나 블루 투어리즘(어촌 관광) 등의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교토 배움관광’과 연계함으로써, 교토의 자연과 전통산업, 新산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007년부터는 1948년에 태어난 세대가 퇴직하기 시작함. 지혜, 시간, 금전을 가진 퇴직 세대에게 어떻게 교토를 알릴 것인가가 중요함.
 - 교토府 관광연맹은 각 시·읍·면의 관광협회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 관광연맹은 관광상품 기획 등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함.
- 이 계획을 기초로 2005년 전통산업 위주의 체험관광을 시작했고, 2006년에는 국제관광 추진 및 광역적 관광전략에 힘써 왔음.
 - 2007년에는 ‘경쟁력 있는 관광지 만들기 계획 개정판’을 공표하고 府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활 공감·감동 창조’라는 교토 관광전략을 세움.

(www.pref.kyoto.jp/kanko/1191286652424.html)

(www.pref.kyoto.jp/kanko/plan.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교토府의 관광 경쟁력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계획은 서울시의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과 흡사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시된 각종 관광진흥계획은 대체로 정책기반과 관련된 내용임. 이와 같은 기초적인 관광계획 내용은 서울시도 이미 수립해 시행단계에 있음.
 -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관광시책 중에는 전문적인 검토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가끔 있음. 이는 민선 4기에서 중시하는 창의시정의 본질과 달리, 자칫 하면 비효율적이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울시 관광시책을 살펴보면 거대 프로젝트 외에 아직은 획기적이거나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소재가 미흡함.
 - 파리市가 추진하는 도심 셀프 전기차 렌터카 사업과 호주 애들레이드市의 태양열 전기 버스는, 관광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관광상품이자 도시 브랜드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관광진흥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의 글로벌 선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거나 흥미로운 아이디어 발굴, 올바른 판단, 신속한 시행만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금기용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한줄 뉴스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 2008년 2월 19일 '제1회 관광의 날'을 기념해 베를린 관광경제 진흥을 위한 전문포럼 개최
- 일본 관동지역, 젊은이 대상의 악질 상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 실시

3. 고급 기차로 관광사업 활성화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2008년 4월 23일부터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고급 기차인 'Great Brazil Express' 운행을 시작할 예정임. 이 기차 운행으로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Great Brazil Express 고급 기차여행은 국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8일에서 10일짜리 패키지 상품임.
 - 기차의 좌석 수는 44개로 안락하게 공간을 꾸미고, 국제적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항공 서비스 수준으로 운영됨.
 - 연간 2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미 2008년 10~12월 패키지 티켓은 모두 판매된 상태임.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467)

건강 · 복지

4. 생애 스포츠 사회 실현계획 공표 (일본 교토府)

- 일본 교토府는 스포츠 자원을 활용하고 府民이 스포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생애 스포츠 사회 실현계획'을 공표함.
 - '생애 스포츠 사회'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각각의 연령, 체력, 목적에 맞는 스포츠를 주체적으로 즐기고, 스포츠가 일상생활에 정착하도록 하는 사회임.
 - 성인이 스포츠를 즐기는 비율을 2003년 기준 39.6%에서 2013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을 2003년 9개소에서 2013년 50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임.
 - 경기력(競技力) 향상이나 스포츠클럽 수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스포츠 시설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함.

(www.pref.kyoto.jp/spo-syo/10300021.html)

5. 주민끼리 끈끈하게 엮어주는 ‘지역력’의 힘 (일본 교토府)

- 교토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따뜻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2007년부터 지역력(地域力) 재생 프로젝트 ‘교토의 힘, 내일의 힘: 지역력 재생 지원계획’을 실시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이 매력적인 지역상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지역력 재생 활동에 협력하도록 이끌어 새로운 주민자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민간과 행정의 역할 분담, 여러 주체가 협동해 지역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향후 시책과 업무 추진방향 설정 등임. 실행계획은 이념편과 기반 시책편, 실천편으로 구성됨.
 - 이념편에서는 지역력 재생의 필요성이나 민간과 행정의 역할, 교토府의 새로운 통치에 임하는 자세, 협동과 파트너십에 대한 기본방침을 명확히 함.
 - 기반 시책편에서는 지역력 재생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웹사이트 구축, 중간 지원조직 설립이나 인재 육성 및 파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실천편에서는 각 지역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역력 재생에 임하는 단체의 활동 사례를 소개함.

(www.pref.kyoto.jp/chiikiriyoku/1197263414452.html)

6. ‘폴뿌리’ 동(洞) 의회, 45년 만에 되살린다 (영국)

- 영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동(洞) 의회’(Town and Parish Councils)를 정부의 승인 없이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이것이 실행되면 동 의회가 4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스스로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됨.

- 지역 현안을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다루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됨.
 - 도시계획 허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내용이 지역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경우 동 의회를 열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됨.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동 의회에 이양하는 발전된 시도임.

- 영국정부는 동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중임.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4469/
New-parish-council-powers-approved)

7. 10대 청소년 음주 단속 강화 (영국)

○ 영국 내무부는, 10대 청소년이 음주 후 기물을 파괴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10대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경찰권을 강화하고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함.

-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임.
 - 경찰에게 음주단속에 대한 부가적인 법률 권한도 부여함.
 - 음주와 관련해 부모의 관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와의 계약서’(Parenting Contracts)도 작성함.

- 내무부는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상과 상점을 대상으로 지침서를 통해 10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홍보하고 있음.

(press.homeoffice.gov.uk/press-releases/drinking)

방재 · 안전

8. 저녁 자전거 산책도 안전은 필수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실시되는 ‘자전거 산책’(Bike Night) 프로그램에 새로운 안전정책을 도입함.

- 주요내용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 제한, 안전장비 착용, 서포터 확대 등임.
· 안전장비를 착용한 15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고, 자전거 최고 속력은 시속 20km로 제한함.

- 市는 새로 도입한 안전정책을 통해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자전거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

· 市 체육·레저국 전문가 및 교통요원, 市 경비대원이 모니터링함.

· 휴일 전날이나 폭우가 내리는 날, 교통체증이 심한 날에는 자전거 산책 프로그램이 취소됨.

· 자전거 점검과 브레이크 특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464)

9. “얘들아, 인터넷은 때로 위험하단다”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학문·연구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의 신뢰와 안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 2008년 2월 12일에 열린 워크숍 주제는 ‘인터넷에서의 흔적’, ‘인터넷에서의 접촉 위험’, ‘인터넷에서의 모욕’ 등임.

· 워크숍에서 인터넷은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자료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등 인터넷에서의 안전성을 논의함.

· 학생 VZ, 클릭세이프.de, 독일 아동지원단체, 베를린 청소년넷 등의 단체가 주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2/05/93343/index.html)

도시 환경

10. 혼잡통행료도 ‘매연 배출 성적표’에 따라 부과 (런던)

- 런던市는 2003년 처음 도입한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 운영에 있어 오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하고, ‘런던광역권 도심 혼잡통행료 훈령 2007’(The Greater London Central Zone Congestion Charging Variation and Transitional Provisions Order 2007)을 공식 발표함.
 -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금을 높여 친환경적인 차량 이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런던市는 현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약 80%는 중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1일 8파운드(약 1만 6000원)를 내거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하지만 2001년 3월 1일 이후 영국 운전면허국(DVLA: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1km당 225g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등록된 차량, 2001년 3월 1일 이전 3000cc 배기량 이상으로 등록된 차량, 2열 이상 좌석이 설치된 동급 배기량 픽업트럭 등은 혼잡통행료로 25파운드(약 5만 원)를 내야 함.
 - 90% 감면혜택을 받았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자 혜택이 없어짐. 대안 연료 사용 시 받을 수 있던 통행료 감면혜택도 단계적으로 줄어나가 2010년에는 폐지될 예정임.

(www.tfl.gov.uk/roadusers/congestioncharging/7394.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은 교통수요 관리정책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런던市의 혼잡통행료 차등부과 조치는 기존의 혼잡완화를 목표로 시행됐던 혼잡통행료 제도가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유럽의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목적을 대기질 개선에 두는 경우가 많음.
이탈리아 밀라노市도 ‘Eco Pass’라는 이름으로 런던市가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한 혼잡통행료 제도를 최근 도입했음.
 - 서울시도 남산 1·3호터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주요 혼잡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혼잡통행료 확대 추진 시 세계적 추세를 참조해 목표가 혼잡완화인지 대기오염 저감인지 명확히 목적을 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대상 차량 및 요금수준 등 시행방법을 고민해야 함.
 - 시행에 앞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혼잡통행료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을 사전에 제시해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사전 노력도 중요함.
-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11. ‘환경 물류 프로젝트 회의’ 설치 (도쿄)

- 도쿄都는 대기질 개선, 교통정체 완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해 도심에 진입하는 물류차량 수를 줄이고 향후 건설되는 대규모 복합 빌딩에 있어서의 물류 효율화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 조성업자와 물류사업자로 구성된 ‘환경 물류 프로젝트 회의’를 설치함.
- 환경 물류 프로젝트 회의는 건물 내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택지 조성업자와 물류사업자가 계획 단계부터 협의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첫 시도임.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건물 내 물류의 효율화에 따라 납품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건물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도모함.
 - 건물에 출입하는 납품차량의 공동배송을 추진함으로써 물류차량 수를 줄임.

- 공동배송을 추진하기 위해 ‘납품 물류 개선을 위해서’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상업시설이나 물류사업 등의 관계자에게 배포함.
 - 공동배송을 실시하면 환경 부하를 낮출 수 있고 물류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리플릿에 설명해 놓음.
 - 공동배송 도입을 위한 실무 흐름도(Flow Chart)를 작성해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작성해 놓음.
- 매일 각 점포마다 출입하는 물류차량이 줄어들면 상업지역에서 물류차량으로 인한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www.8taiki.jp), (www.mlit.go.jp)

(www2.kankyo.metro.tokyo.jp/jidousya/tdm2/Important/conference.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나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도시에서 대기오염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물차의 운행 및 수요 관리는 중요한 과제임.
 - 도쿄都가 물류 관련 화물차의 절대적 감소를 위해 건축물 조성 및 건설 단계부터 택지조성 사업자와 물류 사업자가 물류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 물류 프로젝트 회의를 설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도 균형발전 촉진, 뉴타운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사업과 도심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물류 관련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쿄都처럼 택지조성 사업자와 물류 사업자가 건축물 건설 초기단계부터 물류계획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 재정비 사업 및 도심 재창조 사업과 연관된 운수물류과의 도시교통본부 뿐 아니라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건설기획국 등이 함께 건물 내 물류 효율화 추진과 지역 단위의 물류 공동화를 꾀해야 할 것임.

/이우승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wooseung@sdi.re.kr)

12. 수돗물 마시고 온실가스도 줄이자 (런던)

- 런던市와 런던 템스 상수도(Thames Water)는 런던 내의 식당과 카페 등에 수돗물을 권장하는 ‘수돗물 런던’(London On Tap)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 이 캠페인은 병이나 플라스틱에 든 물의 제조·저장·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됨. 캠페인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양질의 수돗물을 홍보함과 동시에, 물을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이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자 함.
 - 식당이나 바(Bar)에서 손님이 수돗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수와 수돗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 유리로 만드는 유리 물병 디자인 대회를 통해 수돗물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유리 물병을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사용하도록 함.
 - ‘지구의 친구’(Friend of Earth) 환경단체는 수돗물 사용은 유리와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734)

>>> 전문가 검토의견

- 수돗물은 생산 후 수도관을 통해 가정 및 식당 등으로 수송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음.
 - 서구에서는 병에 담긴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일반화됐는데, 수송 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며, 빈 병은 폐기물로 남음.
- 수돗물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는 자세는 본받아야 함.
 - 또한 도시의 생명 유지시설 중 하나인 수도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면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에서도 생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생수 매출액이 탄산 음료 매출액을 추월했으며, 생수 수요 증가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수질이 양호할 뿐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생수와 수돗물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함.
- /조항문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3. 관광지에서도 환경보호 먼저 (브라질)

- 브라질 정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국립공원 등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환경보호 강화 규정을 도입해 환경보호에 나서고 있음.
 - 성공적인 환경보호 사례로 꼽히는 ‘페르난도 데 노롱야’(Fernando de Noronha) 섬에 들어가려면 관광객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 정보를 적어야 함.
 - 관광객 중 98%가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선택하는데, 450명만 탑승할 수 있음. 즉 한번에 450명만 섬 관광을 할 수 있게 됨.
 -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세로 35헤알(약 2만 원)을 내야 함. 이 돈은 환경보호사업에 사용됨.
 - ‘아브롤로스’(Abrolhos) 국립공원은 하루 최대 225명만 관광할 수 있음.
 - 관광객은 입장료로 10헤알(약 5000원)을 내고 등록된 15대의 배로만 들어갈 수 있음.
 - 리우데자네이루市の ‘일라그란지’(Ilha Grande) 섬을 여행하려면 여행정보센터에 들러 관광팔찌를 받아야 함. 팔찌가 없으면 섬에서 쫓겨남.
 - 입장료는 없으나 캠핑비용을 내야하며 성수기에는 하루 20헤알(약 1만 2000원)임.
 - 섬 관광 대표는 섬 주민 인구가 100명인데 관광객이 4000명까지 달했다고 말함. 현재 이 섬은 560명의 관광객만 받아들이고 있음.
- (www.estadao.com.br/geral/not_ger92383,0.htm)

14. 영화·TV 프로그램 제작 때에도 CO₂ 저감 노력 (런던)

- 런던市와 런던 영화진흥위원회(Film London)는 환경 친화적인 영상물 만들기를 주도해갈 ‘녹색 영화 런던’(Green Screen London)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함.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런던市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및 각종 영상물의 제작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임.
 - 영국 영화진흥위원회, 영국 ‘영화·TV·예술 아카데미’(BAFTA) 등 영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유명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함.
 - 런던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정부 조직과 영상산업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런던 영상제작 파트너십’(London Filming Partnership)도 환경친화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행동요령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은 런던 영상산업의 ‘탄소 발자국’ 산정 및 이산화탄소 저감계획 수립을 첫 사업으로 추진함.
 -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60% 저감을 목표로 하는 런던市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부문별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계획임.
 - 에너지 효율 증진방안은 2008년 말 열릴 ‘BAFTA 영상산업 부문 연례회의’에서 논의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561)

(www.filmlondon.org.uk)

한줄 뉴스

- 캘리포니아州 에머리빌市,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시행을 하는 등 시민주도형 차량 서행구역 조성 추진
- 런던市, 2008년 10월부터 혼잡통행료 지역에 진입하는 고급 자동차와 스포츠카에 혼잡통행료로 1일 25파운드(약 5만 원) 징수

15. 나무는 ‘미세먼지’ 먹는 하마 (영국)

- 영국 ‘유럽연합 환경연구’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市, 잉글랜드 버밍엄市, 울버햄프턴市, 코번트리市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무가 도시의 미세먼지를 최대 1/4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함.
 - 미세먼지는 체내 축적 시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목지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7%에서 26%까지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봤으며, 특히 미세먼지가 내려앉을 수 있는 잎이 크고 넓은 활엽수종일수록 제거효과가 컸음.
 - 유럽연합 환경연구는 도심 조경을 통해 직접적인 오염물질 제거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함.
 - 나무에 내려앉은 미세먼지는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오염(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함.
(ec.europa.eu/environment/integration/research/newsalert/pdf/96na4.pdf)

16.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면 은행 문턱 낮아진다 (도쿄)

- 도쿄都는 개인이나 기업의 환경배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환경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함. 기업의 환경대책이나 도민의 환경배려 행동을 금융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都가 협력하는 것임.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이나 개인의 환경배려 행동을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음.

- 지구온난화 등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기능이 기업과 개인의 환경배려 행동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환경의식이 높은 도민, 환경정책이나 환경배려형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www2.kankyo.metro.tokyo.jp/kikaku/finance/project.htm)

17. 시민이 적는 ‘환경보호 실천 이야기’ (캘리포니아주 월넛크릭市)

○ 캘리포니아주의 월넛크릭市는 시민이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사항이나 제안을 적는 ‘Going Green Stories’를 市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시민이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임.
 - 전기 절약방법,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
-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적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공감을 쉽게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www.walnut-creek.org/header.asp?genericId=1&catId=5&subCatId=1427)

도시교통

18. 자전거 이용자 늘면 자전거 주차장도 늘어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자전거 이용자의 평가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전거 주차장 설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함.

- 이 프로젝트에 약 300만 헤알(약 1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Sul America’ 보험회사에서 장비 설치 및 유지작업을 맡게 됨.
- 1단계에서는 아테호 도 플라멩고(Aterro do Flamengo)부터 성 콘라도(Sao Conrado)까지의 자전거 주차장이 2배로 확장됨. 현재 350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700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됨.
- 2단계에서는 바하 다 티주카(Barra da Tijuca)부터 마쿰바(Macumba) 해변까지 약 2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듦.
- 3단계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를 연결함. 역이나 버스 터미널 인근에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까지 가서 그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4단계에서는 2개의 실내 자전거 주차장을 만듦. 이 주차장에는 각각 3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으며, 화장실과 자전거 수선소 등의 시설을 갖춘.

(www.rio.rj.gov.br/dorio)

한줄 뉴스

<브라질 쿠리치바市>

- 2007년 한 해 동안 문화기금 670만 헤알(약 33억 원)을 197건의 문화 프로젝트에 후원

- 1900여 대 버스 중 65%가 장애인을 위한 특별시설을 갖췄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좌석을 최소 20% 이상 확보